

활동관여-장소애착 유형에 따른 환경책임행동분석[†] - 남한산성 도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

김현* · 송화성** · 김예은***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 ***단국대학교 대학원 관광지역계획연구소

Analysis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s based on a Typology of Activity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 Focuses on Visitors to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

Kim, Hyun* · Song, Hwasung** · Kim, Yee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Humanities & Social Science Group, Suwon Research Institute

***Regional Planning & Design Lab,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concepts of activity involvement(AI) and place attachment(PA) are useful for explaining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by humans.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I and PA on environmental behaviors and found its implications, it has not examined the simultaneous effects of both AI and PA.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typology of both AI and PA. This typology was used to explain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s of visitors. The study sample surveyed 587 users of the main trail in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reliability, factor analysis, cross-tabulation, *T*-test, correlation and ANOVA analysis. As a result, the typology identified four subgroups of hikers based on involvement in hiking and attachment to setting. Results also indicate tha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s do vary significantly across typology. In detail, general environmental behavior and specific environmental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four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 seems to play a more powerful role than AI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behavior. While more involved and more attached hikers were more active in environmental behaviors, less involved and less attached hikers had a more passive attitude. In this respect, this study placed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 future resource management of tourism and outdoor recreation may be established based on its activity experience in certain place.

Key Words: Hiking, Satisfaction, Park Management, Recreation Management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7279).
Corresponding author: Hwasung Song, Humanities & Social Science Group, Suwon Research Institute, Suwon 443-810, Korea, Tel.: +82-31-220-8043, E-mail: hssong@suwon.re.kr

국문초록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의 영향관계, 그리고 각 개념과 환경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었으나, 두 개념을 결합하여 환경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한산성 방문객을 대상으로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을 결합한 유형구분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경책임행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남한산성의 주요 등산로에서 총 587부의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빈도, 신뢰도, 요인, 교차, 평균비교분석, 상관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활동관여-장소애착에 따라 고관여-고애착, 고관여-저애착, 저관여-저애착, 저관여-고애착의 4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유형별 환경책임행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 환경행동과 전문적 환경행동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활동관여보다는 장소애착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등산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남한산성에 애착이 높은 방문객이 가장 적극적인 환경행동을 보인 반면 등산에 대한 관여도와 장소애착이 모두 낮은 방문객의 경우 소극적인 환경책임행동이 나타나 장소애착이 사람들의 친환경행동을 이끌어내므로 향후 관광·레크리에이션 자원 관리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등산, 만족도, 공원관리, 레크리에이션 관리

1. 서론

세계화가 낳은 시간과 거리의 장벽 해소로 인하여 사람들은 목적지의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의 위락 및 관광자원관리 기관에게 있어 방문객, 활동, 그리고 장소 간의 관련성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Manning, 2011). 그러나 활동이 중점 고려사항이 될 경우 장소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에 지역관광자원관리자들은 활동의 특징과 속성보다 장소에 집중하고 있다(Williams and Roggenbuck, 1989). 예를 들어 장소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기 이전에 장소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만 집중할 경우 해당 장소에서 선호 활동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타 장소에서 보다 나은 수준의 해당 활동을 제공할 때 방문객들은 장소를 쉽게 바꿀 것이다. 이렇듯 지역 경쟁 측면에서 장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소의 동질성, 장소 간 차이, 장소성, 장소 이미지, 장소애착, 장소마케팅 등 장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장소애착은 그룹 또는 개인과 환경사이의 긍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개념(Low and Altman, 1992)으로 사람들은 장소애착을 통해 소속감을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획득한다(Bricker and Kerstetter, 2000). 개인 혹은 사회가 소속 지역 사회 혹은 관광지 등 장소에 대해 장소애착이 높을 때 해당 장소의 자연적·사회적 자원이 보존이 용이해진다(Sampson and Groodrich, 2009). 관광학에서는 관광객이 관광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특정 장소나 지역에 대해 애착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에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방문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지역주민의 장소 애착심 측면에서 접

근한 것이 대부분이다. 장소애착이 장소의 환경이나 특정한 배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감정적 연관(Low and Altman, 1992)을 통한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주체인 방문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Mannell and Iso-Ahola(1987)에 따르면 동기(motivation)는 여가경험의 선행조건인 반면 만족(satisfaction)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문객 만족은 만약 참여의 이유가 충족되거나 월등하면 나타날 것이다(Holland and Ditton, 1992). Hwang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활동중심의 방문객과 장소중심의 방문객이 해당 장소와 그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각기 다른 기대와 만족을 갖는다. 활동과 장소 중 어느 것이 방문객의 기대나 만족에 선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지역주민이 아닌 대다수의 외부 방문객이 지역 특성에 앞서 자연경관관람, 문화재 탐방, 등산 등 지역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Needham *et al.*, 2005; Vaske *et al.*, 1982). 이는 지역민은 지역 그 자체에 애착을 갖는 반면, 외부 방문객은 해당 지역의 활동의 선호 혹은 몰입의 과정을 거쳐 지역에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장소애착과 활동관여에 대한 많은 연구 중 몇몇 연구는 특정 태도가 특정 행동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해당 두 개념이 중요한 태도 및 행동 변수와의 관계를 연구해왔고(Dimanche *et al.*, 1993; Williams *et al.*, 1992; McIntyre and Pigram, 1992).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이 환경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Vaske and Kobrion (2001)은 정서적인 장소애착이 높게 나타나면, 친환경적 행동도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Kim(2002)은 자연에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환경태도를 가지거나 환경보전의식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Lee(2005)는 모험스포츠 참여자들이 활동에 관여할수록 환경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며 애착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Scannell and Gifford(2010)는 장소애착의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친환경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장소애착과 활동관여 모두에 초점이 맞춰있기보다 두 개념 중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장소뿐만 아니라 장소 안에서의 경험과도 연관이 있는 복잡한 현상이다. 따라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경험의 역동적 성질을 고려할 때, 두 구성개념을 결합하여 그 선행변수나 후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그 동시효과의 검증을 통해 두 개념의 실질적 효용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관여-장소애착 결합 유형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활동관여-장소애착 유형 구분을 실시하며 활동관여-장소애착 유형과 친환경적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고찰하여 향후 야외레크리에이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장소와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각 장소에는 장소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장소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 존재하게 된다(Han, 2011). 장소애착은 장소 본질을 체험한 개인의 감정, 인지, 경험, 행동, 믿음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감정적인 유대관계이며(Kang and Choi, 2012),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장소나 환경에 장소애착을 느낀다(Peterson *et al.*, 1985). 또한 장소에 대한 애착은 개인과 집단과 그들의 지리적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결속이며, 체험한 어떤 장소로부터 소외되어 생긴 고뇌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기억과 경험 속에 있는 장소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통하여 얻는 감정으로 심리적 복지의 체험 상태라고 볼 수 있다(Lee, 2005).

장소애착은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Stokols and Shumaker의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과 Proshansky *et al.* (1983)의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이다(Bricker and Kerstetter, 2000). Backlund and Williams(2004)는 장소의존성은 장소가 기능적인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이며, 장소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Lyu and Oh(2008)는 장소의존성은 개인이 특정 장소에 대해 느끼는 유대감의 강도를 나타내며, 그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과 함께 대체 가능한 다른 장소와의 비교에 의해 나타나는 상대적 특징으로 평가되는 반면 장소정체성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믿음, 이상, 선호, 기분, 가치관, 목표뿐 아니라

특정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적 경향과 기술의 복합적 형태에 의해 설명 가능한 물리적 환경에 대비된 개인적 자아로 정의하였다. 즉 장소애착은 방문객이 가지는 심미적 태도나 행동적 경향으로써 개인이 장소에 대해 정체성과 의존성을 가지는 애착으로 볼 수 있다(Shin and Kim, 2011). 위의 연구가 장소와 개인적 유대관계를 조명했다면, 최근에는 장소와 사회적 유대(social bond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Hidalgo and Hernandez, 2001; Low and Altman, 1992; Mesch and Manor, 1998). 특정장소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들의 관계와 공유된 경험의 맥락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회적 유대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Mesch and Manor(1998)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이웃을 향한 감정에 영향을 주며, 해당 장소에 친한 친구들이 사는 응답자들이 강한 애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Hidalgo and Hernandez(2001)는 사회적 애착이 집, 이웃, 도시의 3가지 공간적 맥락에서 강하게 나타남을 관찰했다. 사회적 유대감을 항목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Moore and Graefe(1994)는 장소의존성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했던 이전여행에 대한 추억 때문에 같은 장소에 똑같이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Kyle *et al.*(2005)은 장소애착의 기존 두 요소 외에 사회적 유대감을 포함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장소애착의 개념에 사회적 유대를 포함시켰다. 장소애착의 정량적 측정 시 사용되었던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외에 사회적 유대감을 인간과 장소애착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Kyle *et al.*(2005)의 논의를 확장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야외에 대한 애착연구로 접어들면서 그 곳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장소애착의 예측변수로 연구되기 시작했다(Mowen *et al.*, 1997). 여가와 관광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관여도를 활동관여(activity involvement) 또는 여가활동관여(leisure activity involvement)라고 말한다. 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자극, 흥미의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정의한 것(Kyle *et al.*, 2003)으로, 지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여가활동에 대해 갖는 감정적인 반응인데,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 노력, 태도 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Han, 2011). 활동관여의 하위 개념은 매력성(attraction), 자기표현(self-expression), 중심성(centrality)으로 구성되는데(Mowen *et al.*, 1997), 매력성이란 활동에 관련된 중요성이나 기쁨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표현은 활동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고, 중심성이란 활동의 가치가 삶의 다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Kyle *et al.*, 2004b).

이러한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의 개념은 방문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그룹세분화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Mowen *et al.*(1997)은 마운트 로저스 국립휴양지(Mount Rogers National Recreation Area)를 대상으로 장소애착과 활동관여에 대한 유

형을 발전시키고자 애착과 관여의 정도(level), 방문객이 느끼는 환경적 평가, 경험적 평가를 조사하여 애착과 관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Kyle *et al.*(2003)은 애팔래치안(Appalachian) 등산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관여도의 3개의 요인 중 자기표현만이 장소애착(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yle *et al.*(2004)은 같은 대상지에서 장소애착과 활동관여가 환경의 혼잡성(setting density)에 대한 인식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소애착의 요인들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정체성이 높을수록 혼잡을 느끼고, 장소의존성이 높을수록 혼잡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Kyle *et al.*(2003, 2004b)은 애팔래치안 트레일 방문객을 높음, 중간, 낮음의 장소애착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활동몰입, 혼잡도 지각, 지불의사, 사회적·환경적 상태 인식,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그룹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징(성별, 교육정도, 수입, 거주형태)의 실질적 차이가 없었으나 하이킹 동기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 그룹들은 트레일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었으며, 관리를 위한 행동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그들에 따르면 장소애착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당 지역의 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야외위락영향(recreational impact)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장소를 빈번히 방문하는 그룹의 여러 유형을 구분해내는 것은 해당 그룹들이 부여하는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활동과 장소의 차이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던 Kyle *et al.*(2004a)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그룹은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경향이 있는데 반해, 장소애착에 기반한 그룹을 해당 장소에서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Mitchell *et al.*, 1993). 이는 장소 간 의미부여는 이용객 개개인이 일생동안 형성해온 문화적 다양성에 의한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Mowen *et al.*, 1997). 그러므로 단순히 장소애착의 정도에 따른 방문객의 유형구분보다는 여기에 해당 장소에서 이뤄지는 주 활동에 따른 그룹 분류 등을 결합할 때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장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찾게 만들고 머물게 하며 보호하고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Manzo and Perkins, 2006). 이처럼 장소에 대한 마음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인자이다. 책임행동(responsible behavior)에 대해 장소애착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립공원 방문객이나 천연자원(natural resource) 작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Lee, 2011). 장소애착과 친환경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가상의 위협과 싸우려는 의지를 측정한 행동의도와 실제 환경행동의 측정으로 나뉘며, 이 두 개념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이 둘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Stedman(2002)은 애착이 장소를 보전하는 행동 또는 의향에 대하여 지지하는데 많은 연관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Nordenstam(1994)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지역환경에 위협이 되는 고속도로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실제 친환경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Vaske and Kobrion(2001)은 정서적인 장소애착이 높으면 친환경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Clayton(2003) 또한 환경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태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zzell *et al.*(2002) 연구에서는 장소애착과 친환경적 행동의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환경적 질의 다른 두 이웃그룹을 조사한 결과, 환경적인 질이 높은 그룹이 장소정체성은 높았지만, 장소정체성과 친환경적 행동과의 관계는 약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해당그룹이 환경적 질이 이미 청결하여 더 향상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친환경적 행동 외에 안전 등과 같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환경적 질이 낮은 그룹은 환경적 질이 높은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친환경적 행동이 나타났으나, 장소애착은 낮았다. 이에 대해 Uzzell *et al.*(2002)은 만약 사람들이 저급한 질의 환경에 강한 장소정체성을 느낀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질 좋은 환경에 장소정체성을 느끼기 때문에, 애착은 친환경행동의 예측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장소애착과 실제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소애착은 여러 유형의 장소들에서 연구되어져 왔지만 연구 범위가 대부분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도립공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및 조사방법

연구는 경기도 남한산성 도립공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 2014년 10월 19일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설문조사는 2명의 설문조사요원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입구인 동문, 남문, 북문, 그리고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수어장대 부근의 쉼터, 이렇게 총 4곳에서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배포할 적정장소 및 설문지 항목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30부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북문과 수어장대를 설문지 배포장소로 설정하고 응답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 2일에서 11월 17일 사이에 총 7일을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교육받은 7명의 설문조사요원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북문쉼터와 수어장대 인근 쉼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탐방객들만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응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유효표본 587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 측정 및 설문지

장소에착의 12항목은 기존 장소에착 측정에 널리 쓰이던 Williams and Roggenbuck(1989)의 척도에 사회적 애착 측면을 포함시킨 Kyle *et al.*(2005)의 척도를 결합하여 장소에착의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과 사회적 결합 측면을 측정하였다. 활동관여의 13항목은 McIntyre and Pigram(1992)의 지속적 관여(Attraction, Centrality to Lifestyle, Self-Expression) 척도를 사용하였고, 환경적 행동은 Vaske and Kobrin(2001)¹¹에 언급된 환경책임행동(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Index: ERBI)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물리적 행동, 설득적 행동, 시민행동과 법적 행동 측면으로 구성된 13항목으로 구성·측정하였다. 친환경적 행동은 방문객의 일상 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 '환경행동을 위한 설득', '분리수거와 거리청소 등의 물리적 행동'과 '환경과 연관된 정치적 행동' 등에 관한 아이টে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연구의 목적은 활동관여-장소에착 2×2 유형에 따른 방문객의 환경행동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활동관여와 장소에착의 유형화에 앞서 활동관여-장소에착이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개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활동관여와 장소에착을 중앙분리방법(median split method)에 의해 '높고', '낮음' 수준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PA-AI: L-L1, H-L2, L-H3, H-H4). 즉 활동관여와 장소에착을 독립적인 변수로 다루고, 중간 분리방법을 사용하여 방문객을 2*2 유형으로 4그룹으로 분류하여 환경적 행동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활동관여-장소에착 2×2 유형을 독립변수, 환경행동을 종속변수로 놓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유형간 환경행동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심도있는 유형간 행동 차이를 보기 위해 Scheffe' HSD 사후 테스트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환경책임행동은 요인분석을 통해 항목을 축소하고 활동관여-장소에착 2×2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유형 간 세부항목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IV. 연구의 분석 및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특성과 일반 행동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54.2%, 여자 45.2%로 남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50대(30.8%), 40대(29.1%)가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은 회사원(29.0%)이 가장 많았으며 주부(21.3%), 자영업(17.9%)이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27.1%,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25.4%, 500만 원 이상 25.0%로 나타났다. 가족인원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4인 가구(52.5%)가 과

Table 1.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Sex	Male	318	54.2
	Female	269	45.8
Age	10's	4	0.7
	20's	56	9.5
	30's	93	15.8
	40's	171	29.1
	50's	181	30.8
	60's	67	11.4
	Over 70's	15	2.6
Occupation	Own business	105	17.9
	Company worker	170	29.0
	Profession	93	15.8
	Housewives	125	21.3
	Student	44	7.5
	Other	50	8.5
Income level (monthly)	Less than 1 million won	10	1.7
	1~2 million won	32	5.5
	2~3 million won	90	15.3
	3~4 million won	159	27.1
	4~5 million won	149	25.4
	More than 5 million won	147	25.0
Family number	Single-person households	21	3.6
	Two-person households	81	13.8
	Three-person households	111	18.9
	Four-person households	308	52.5
	Five-person households	56	9.5
	Six-person households	10	1.7
Residence	Seoul-si	224	38.2
	Seongnam-si	184	31.3
	South Gyeonggi	137	23.3
	North Gyeonggi	23	3.9
	Other	19	3.2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거주지는 서울시(38.2%), 성남시 (31.3%)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경기북부(3.9%), 경기도 외 지역 (3.2%)은 매우 낮아 전국적인 명소라기보다는 지역 명소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참조).

남한산성의 재방문율은 71.0%로 나타났으며, 재방문객 417명 중 53.0%는 20년 전부터 방문했으며, 최근 1년간 10회 이상 방문한 응답자는 전체의 55.1%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한산성에 대한 과거경험(past experience)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참조).

응답자의 69.5%가 등산을 하기 위해 남한산성을 방문하였으며, 응답자의 54.4%가 남한산성에서 주로 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문화관광에 대한 요구(needs)가 나타나고 있으나 남한산성의 주 이용객은 여전히 등산객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시점이 2014년 지정 직후인 2014년 11월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문화유산탐방 (3.7%),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7.3%), 유명 관광지 방문 (5.8%) 등의 등산 외 방문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산 외 활동이 전무한 타 도립공원 대비 남한산성의 등산 외 활동 수요를 볼 때, 등산객의 문화관광객화 혹은 문화관광객의 등산객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남한산성의 방문객을 등산객으로 한정짓기보다는 전체 방문객을 중심으로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Table 3 참조).

Table 4의 남한산성 등산객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남한산성 재등반객은 71.0%에 달하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9.6%)가 최근 1년간 24회 이상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남한산성에 대한 등반경험은 풍부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응답자들은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을 물어보기에 적절한 집단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평상시 등산 활동행태를 조사한 결과 Table 5에서 나타났듯 응답자의 대다수(73.5%)는 약 10년간 등산활동을 해왔으며, 응답자의 58.1%가 최근 1년간 남한산성을 제외한 다른 산 등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2. Past experience in visiting Namhansanseong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First visit	Yes	170	29.0
	No	417	71.0
Time of first visit	4 years ago	95	22.8
	9 years ago	101	24.2
	19 years ago	114	27.3
	24 years ago	107	25.7
Visit count for a year	Twice	103	24.7
	Fifth times	84	20.1
	Ten times	74	17.7
	Thirty times	85	20.4
	More than thirty one times	71	17.0

Table 3. Purpose of visit Namhansanseong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Purpose of visit	Hiking	408	69.5
	Intangible cultural treasure	22	3.7
	Traditional indigenous foods	18	3.1
	Designated as a UNESCO	43	7.3
	Visiting famous tourist site	34	5.8
	Acquaintance's suggestion	62	10.6
Type of companion	Alone	60	10.2
	Family	278	47.4
	Friend/couple	195	33.2
	Friendly society/club	53	9.0
	Other	1	0.2
Mostly enjoyed activity	Trail	437	54.4
	Appreciate cultural treasure	152	18.9
	Meal	126	15.7
	Meeting friendly society	86	10.7
	Other	2	0.2

Table 4. Past experience in hiking Namhansanseong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First hiking	Yes	170	29.0
	No	417	71.0
Hiking count for a year	Twice	108	25.9
	Eighth times	102	24.5
	Twenty Four times	103	24.7
	More than twenty five times	104	24.9

Table 5. Hiking activity(all mountains)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Period of hiking	Third-year	156	26.6
	Ninth-year	126	21.5
	Fifteenth-year	155	26.4
	More than sixteenth-year	150	25.6
Hiking count for a year	Twice	118	20.1
	Seven times	128	21.8
	Twelve times	122	20.8
	Thirty times	118	20.1
	More than thirty one times	101	17.2

여가 참가자들이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관여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보한다는 전문화(specialization)의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행동적 성향(behavioral dimension)을 지닌 응답자의 등산에 대한 경험시간, 참가횟수 등과 같은 과거 경험이 높게 나타나 전문화의 또 다른 요소인 활동관여(activity involvement)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집단으로 판단되

었다. 특히 행동적 접근은 주로 양적 측정을 포함하고 있고, 정서적 접근인 활동관여보다는 객관적 요소로 간주되기에 본 설문대상자는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의 경우 고관여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연구 전제를 충족시키고 있다.

2.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남한산성 방문객을 대상으로 활동관여, 장소애착 그리고 환경책임행동 등 세 개념을 측정하였고, 각각의 내적 일관성도를 의미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의 경우 활동관여가 .957, 장소애착이 .887, 환경책임행동은 .871로 나타나 모든 측정척도는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Table 6 참조).

활동관여-장소애착 2x2 유형의 종속변수로는 환경책임행동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의 추출방식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에 의한 주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적용하였고,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적재치 기준을 .4로 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비생태적 행위지적' 변수는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 환경책임행동 13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을 삭제하고, 일반적 환경책임행동(general behaviors)과 전문적 환경책임행동(specific behaviors)의 2개 요인으로 압축되었다.

2개의 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신뢰계수가 각각 .85로 나타나 신뢰도 기준치인 .7보다 높아 환경적 책임활동 측정도구로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를 측정하는 KMO 결과치 또한 .881로 변수의 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역시 3378.792, 유의확률 .000으로 양호하였다.

3. 분석결과

1) 상관분석

장소애착과 활동관여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r = .606$; $n = 587$; $p < .001$). 장소애착과 활동관여는 $r^2 = .37$ 로 약 37%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개념은 유형(typology) 분류 기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관여-애착 유형과 유형별 프로파일

두 척도 각각의 중앙값(활동관여 3.54, 장소애착 3.45)을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7 참조).

A그룹으로 높은 수준의 활동관여와 장소애착 그룹($n=223$), B그룹으로 높은 수준의 활동관여와 낮은 수준의 장소애착 그룹($n=72$), C그룹으로 낮은 수준의 활동관여와 장소애착 그룹

Table 7. A place attachment and activity involvement typology

B group	A group
High activity involvement* Low place attachment**	High activity involvement High place attachment
C group	D group
Low activity involvement Low place attachment	Low activity involvement High place attachment

* Activity involvement median = 3.54 on a 5 point scale

** Place attachment median = 3.45 on a 5 point scale

Table 6.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bou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Environmentally behaviors		Mean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α
General behaviors	Tried to learn what I can do to help solve environmental issues	3.64	.835	2.136	17.802	.85
	Talked with other about environmental issues	3.51	.753			
	Tried to convince friends to act responsibly toward environment	3.76	.718			
	Talked with parents about the environment	3.49	.685			
	Watched TV programs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3.60	.630			
	Sorted trash to separate non recycable from recycable material	4.34	.571			
Specific behaviors	Joined in community cleanup efforts	2.68	.588	4.938	41.153	.85
	Donated money or paid membership dues to a conservation organization	2.31	.809			
	Written to your elected officials expressing your opinions on environmental problems	2.40	.708			
	Investigated your elected officials' voting record on environmental issues	2.38	.817			
	Voted for a politician due to his or her recor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2.75	.670			
	Read publication that focuses on environmental issues	2.67	.595			

KMO: .881, Cumulative %: 58.955

(n=193), D그룹으로 낮은 수준의 활동관여와 높은 수준의 장소애착 그룹(n=99) 유형이 나타났다.

그룹별 특성은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A그룹은 4그룹 중 가장 높은 환경책임활동과 50대의 비율이 높고, 남성이 많으며, 회사원과 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그룹 중 남한산성 재방문율과 하이킹 재경험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주 방문목적 역시 대다수가 등산(84.3%)이었다. B그룹은 A그룹보다도 남성과 회사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A그룹의 뒤를 이어 5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 재방문, 하이킹 경험, 등산목적의 방문비율 역시 높았다.

D그룹은 활동행태 면에서는 A, B그룹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여성(51.5%)의 비율이 높고, 50대와 함께 30대(20.2%)와 40대(27.3%)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책임행동은 B그룹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C그룹은 앞의 세 그룹과 활동행태, 환경활동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40대(33.7%), 여성(54.9%) 비율이 높고 남한산성 첫 방문(56%), 첫 등산(56%)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등산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도 많지만 지인의 권유로 동행(21.8%)하였고 환경책임행동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활동관여-장소에착 2x2 유형과 친환경적 행동 간 관계
 일원분산분석결과 활동관여-장소에착 그룹 간 친환경적 행동은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 환경행동과 전문적 환경행동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Table 9 참조).

A그룹은 일반적 환경책임행동과 전문적 환경책임 모두 4그룹 중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환경책임행동 M=

4.02, 적극환경책임행동 M=2.79). 한편, C그룹은 일반적 환경행동과 전문적 환경행동 모두 가장 소극적인 의사를 나타냈다(일반 M=3.38, 전문 M=2.30).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문적 행동에서는 B그룹을 제외한 두 그룹과 차이를 보였던 반면, 일반적 행동에서는 세 그룹과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반적 환경행동과 전문적 환경행동 모두 B그룹과 D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활동관여와 장소애착 간 관계, 친환경적 행동 또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환경행동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추출할 수 없었다. 일반적 환경행동에서는 A그룹은 B그룹과 차이는 없었으나 D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C그룹은 B, D그룹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전문적 환경행동에서 A그룹은 B, D그룹과 차이를 보였으며 C그룹 역시 B, D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장소애착과 활동관여의 동시 효과(simultaneous effect)가 야외 위락활동 관리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으로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관여와 장소애착 중 어떤 개념이 더 중요한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방문객의 경험을 비교한 Moewen *et al.*(1997)의 연구와 방문객의 동기를 비교한 Morgan and Messenger (2009)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활동관여와 장소애착 척도를 '높고, 낮음'의 중간 분리방법을 이용해 응답자를 유형화한 Mowen *et al.*(1997)은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을 결합하여 장소경험의 평가를 측정한 결과, 가장 높은 관여-애착 그룹의 참여자들은 장소경험에 대해 낮은 관여-애착 그룹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

Table 8. Sample characteristics by class

Division	Mean	A group (38.0%)	B group (12.3%)	C group (32.9%)	D group (16.9%)	Difference testing ^a	
Class identification indicator ^b (Typology)	Activity involvement	3.5	4.2	4.0	2.6	3.0	A>B>D>C
	Place attachment	3.5	4.1	3.0	2.8	3.8	A>D>B>C
Predictors	Demographics						
	Gender(% Male)**	54.2	60.5	66.7	45.1	48.5	B>A>D>C
	Age(% 50's)*	30.8	43.9	36.1	15.0	28.3	A>B>D>C
	Occupation(% Company worker)**	29.0	25.1	34.7	30.6	30.3	B>C>D>A
	Visiting experience						
	The main purpose of visit(% hiking)*	69.5	84.3	70.8	49.7	73.7	A>D>B>C
	First visit in Namhansanseong(% no, revisit)*	71.0	91.0	72.2	44.0	77.8	A>D>B>C
Frist hiking in Namhansanseong(% no, revisit)*	71.0	91.0	72.2	44.0	77.8	A>D>B>C	
Outcomes ^b	Environment responsible behavior	3.1	4.9	3.1	2.8	3.1	A>B=D>C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lass were identified using one-way analyses of variance and Scheffe's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 square tests for categorical variables.

^b: Variable coded on a 5 point scale where 1=strong disagree, 2=moderately disagree, 3=neutral, 4=moderately agree and 5=strong agree

* p<.001, ** p<.01

Table 9. Results of one way ANOVA analysis

Environmentally behaviors	A group(a) N=223	B group(b) N=72	C group(c) N=193	D group(d) N=99	Difference testing ^a (F)
General behaviors	4.02 (b, c, d)	3.72 (a, c)	3.38 (a, b, d)	3.74 (a, c)	A>B=D>C (32.843 [*])
Tried to learn what I can do to help solve environmental issues	3.91 (c)	3.67	3.34 (a, d)	3.64 (c)	B=A>D>C (14.985 [*])
Talked with other about environmental issues	3.82 (c)	3.53 (c)	3.13 (a, b, d)	3.56 (c)	C<A=D=B>C (20.852 [*])
Tried to convince friends to act responsibly toward environment	4.05 (c, d)	3.72	3.45 (a)	3.74 (a)	B=A>D>C (16.669 [*])
Talked with parents about the environment	3.82 (c, d)	3.42 (a)	3.11 (a, d)	3.56 (a)	A>C=D>C (19.827 [*])
Watched TV programs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3.94 (c)	3.68 (c)	3.16 (a, b, d)	3.63 (c)	C<A=B=D>C (22.510 [*])
Sorted trash to separate non recyclable from recyclable material	4.58 (c)	4.29	4.08 (a)	4.32	B=D=A>C (11.649 [*])
Specific behaviors	2.79 (c, d)	2.53	2.30 (a)	2.40 (a)	B=A>D>C (12.532 [*])
Joined in community cleanup efforts	2.99 (c)	2.58	2.37 (a)	2.66	B=D=A>C (9.858 [*])
Donated money or paid membership dues to a conservation organization	2.52 (c)	2.39	2.10 (a)	2.21	B=D=A>C (5.093 ^{**})
Written to your elected officials expressing your opinions on environmental problems	2.73 (c, d)	2.33	2.10 (a)	2.28 (a)	B=A>D=C<A (10.643 [*])
Investigated your elected officials' voting record on environmental issues	2.61 (d)	2.19	2.32	2.12 (a)	B=D=A>D (5.876 ^{**})
Voted for a politician due to his or her record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2.93 (c)	2.90	2.53 (a)	2.68	B=D=A>C (4.435 ^{**})
Read publication that focuses on environmental issues	2.97 (c, d)	2.79	2.38 (a)	2.44 (a)	B=A>D=C<A (12.350 [*])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lass were identified using one-way analyses of variance and Scheffe's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for continuous variables.

^{*} $p < .001$, ^{**} $p < .01$

다. 그러나 혼합 부문(H-L, L-H)은 모순된 결과를 낳아 현장에서는 장소애착이 활동관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유형의 사용에 있어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제기되었다. 한편, Morgan and Messenger(2009)는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을 위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여 고관여-고애착 그룹을 '가장 높은(most) 전문화', 혼합 집단을 '중간 수준의(intermediate) 전문화' 저애착-저관여 그룹을 '가장 낮은(least) 전문화'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각 그룹별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낮은 전문화' 그룹은 주로 외지인이었던 플로터(floater)로 자연경관 감상 등의 동기였다면, '가장 전문화된 집단'은 낚시꾼(fisher)으로 혼자만의 공간이나 혼잡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였다. 보다 전문화된 그룹이 장소 그 자체와 관리에 더 민감하고, 보다 개인적이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중간그룹은 장소와

활동 어떤 부문이 동기와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항목만을 검증했던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활동관여-장소애착 항목별 환경행동항목을 검증하였다. A그룹과 C그룹은 환경적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 등 요인별 검증결과와 같았다. 항목별로는 일반적 환경책임활동 중 4그룹 모두 '분리수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A그룹은 일반적 책임활동 평균대비 '책임행동권유'와 '분리수거', B그룹은 '환경문제 이야기'와 '분리수거', C그룹은 '책임행동권유'와 '분리수거', D그룹은 '분리수거'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항목 검증결과와 항목별 검증결과와의 차이는 B그룹과 D집단에서 나타났다. B그룹이 전체 항목에서는 A그룹과 C그룹과의 차이를 보인 반면, '환경문제 이야기'와 '환경 TV 시청'은 C그룹과 '가족과 이야기'는 A그룹과 차이를 보였고, 그 외 3개의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D그룹은 '문제해결고민'과 '지인과 이야기', '환경TV 시청'은 C그룹과, '책임행동 권유'와 '가족

과 이야기'는 A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전문적 환경책임부문에 서는 전체 항목 검증결과와 같이 항목별 검증결과에서도 B그룹은 타 세 그룹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그룹은 A그룹과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6개의 항목 중 '시청의견 표현', '정치인 친환경투표기록 검토', '환경출판물 읽기' 항목에서 A그룹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B그룹보다 D그룹이 A그룹과 C그룹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때, 활동보다는 장소와의 관계가 친환경행동과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이 방문객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나아가 이 두 정서적 구조의 동시 효과(simultaneous effect)를 검증하였고, 활동관여와 장소애착 중 환경책임행동에 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그룹을 밝혀냈다.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을 유형화하여 관여-애착 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고활동관여-고장소애착인 A그룹은 50대(43.9%), 남성(60.5%)으로 등산을 주목적(84.3%)으로 하며 남한산성 재방문율, 등산 재경험, 환경책임행동이 4그룹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활동관여-저장소애착인 C그룹은 여성(45.1%), 40대부터 20대까지가 많아 다른 3그룹에 비하여 젊은층²⁾으로 남한산성 재방문율, 하이킹 재경험, 환경책임행동이 4그룹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근 여성, 젊은 층의 야외위락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야외위락활동의 주 그룹이었던 남성과 고연령층에서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이 높으며, 신생 시장인 여성 방문객과 젊은 방문객의 경우 등산과 남한산성에 대한 애착이 낮게 나타나 등산에 대한 활동관여와 남한산성에 대한 장소애착은 경험의 축적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었다.

고활동관여-저장소애착인 B그룹은 50대 그룹(36.1%), 40대 그룹(31.9%)으로 남성(66.7%)이 많았고 등산을 주목적(70.8%)으로 하며 남한산성 재방문율, 등산 재경험은 3위에 해당되었다. 반면 B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저활동관여-고장소애착인 D그룹은 50대 그룹(28.3%), 40대 그룹(27.3%)이며, 여성(48.5%)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등산을 주목적(73.7%)으로 하며 남한산성 재방문율, 등산 재경험의 경우 2위로 조사되었다. B, D그룹은 활동에 대한 관여도와 장소에 대한 애착의 차이로 구분되며, 등산활동에 대하여 몰입된 B그룹에서 전통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남성비율이 단연 높고, 남한산성에 대한 애착이 높은 D그룹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장소 자체에 대한 애착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그 궤를 함께 한다.

관여-애착 수준과 방문객의 환경책임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높은 수준의 방문객의 경우 일반적, 전문적 환경책임

활동 모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경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Vaske and Kobrin(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장소애착과 환경책임행동(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과의 긍정적인 영향관계와 Kim(2011)이 밝혀낸 장소애착이 사람들의 친환경행동을 이끌어내는 인자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관광·레크리에이션 자원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의 자원관리는 막연하게 방문객을 만족시키겠다는 생각이나 과거경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방문 전후의 경험의 관찰을 통해 계획³⁾되어져야 한다.

- 주 1. Vaske and Kobrin(2001)의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지인이나 가족과의 환경적 대화, TV 프로그램을 시청, 그리고 책임감 있는 환경책임행동 권유를 포함하는 첫 번째 요인은 일반적 환경책임행동(general behaviors)으로, 환경운동이력이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 환경단체에 기부금 납부, 환경관련 출판물 구독, 그리고 분리수거 등을 포함한 두 번째 요인은 전문적인 환경책임행동(specific behaviors)으로 명명하였다.
- 주 2. 40대 그룹(33.7%)이 그룹 내 가장 많으며, 30대 그룹이 26.4%로 A그룹 5.8%, B그룹 12.5%, D그룹 20.2% 중 가장 많고, 20대 그룹 또한 17.6%로 4그룹(A그룹 2.7%, B그룹 8.3%, D그룹 10.1%)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3. 실제 미국에서는 공원관리에 있어 휴양기회분포(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ROS)를 통해 용도 혹은 활동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ROS 지침마련을 위하여 장소와 활동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References

1. Backlund, E. A. and D. R. Williams(2004) A quantitative synthesis of place attachment research: Investigating past experience and place attachment. Proceedings of the 2003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Symposium 459.
2. Bricker, K. S. and D. L. Kerstetter(2000) Level of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whitewater recreationists. Leisure Sciences 22(4): 233-257.
3. Clayton, S.(2003) Environmental identity: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 In S. Clayton, and S. Opatow(Eds.), Identi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The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Nature, Cambridge, MA: MIT Press, pp. 45-65.
4. Dimanche, D. F., D. M. E. Havitz and D. D. R. Howard(1993) Consumer involvement profiles as a tourism segmentation tool.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1(4): 33-52.
5. Han, J. H.(2011)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Involvement in Leisure Activities, Place Attachment, Satisfaction and Place Royalty. Ph. D.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6. Hidalgo, M. C. and B. Hernandez(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7. Holland, S. M. and R. B. Ditton(1992) Fishing trip satisfaction: A typology of anglers. North American Journal of Fisheries Management 12(1): 28-33.
8. Hwang, S. N., C. Lee and H. J. Chen(2005) The relationship among tourists' involvement, place attachment and interpretation satisfaction in Taiwan's national parks. Tourism Management 26: 143-156.
9. Kang, D. W. and C. G. Choi(2012) Causality analysis of placeness

- cogni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by visitors character,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47(3): 363-379.
10. Kim, D. H.(2002) A study on natural experience and environmental attitud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e Extension* 9(1): 75-86.
 11. Kim, S. O.(2011)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on visitors'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establishing cable cars in Mudeungsan provincial park, *J. Korean Soc. People Plants Environ* 14(3): 171-180.
 12. Kyle, G., A. Graefe and R. Manning(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 settings, *Leisure Sciences* 26: 125-242.
 13. Kyle, G., A. Graefe and R. Manning(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al settings, *Environment and Behavior* 37(2): 123-142.
 14. Kyle, G., A. Graefe, R. Manning and J. Bacon(2003)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among hikers along the appalachian trai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5(3): 249-273.
 15. Kyle, G., A. R. Graefe, R. Manning and J. Bacon(2004) Effect of activity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on recreationists' perceptions of setting dens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 209-231.
 16. Kyle, G., K. Bricker, A. Graefe and T. Wickham(2004) An examination of recreationists' relationships with activities and settings, *Leisure Sciences* 26(2): 123-142.
 17. Lee, K. S.(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attitudes and risk sports specializ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5: 657-664.
 18. Lee, T. H.(2011) How recreation involvement, place attachment and conservation commitment affec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9(7): 895-915.
 19. Low, S. M. and I. Altman(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Vol. 12). US: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20. Lyu, S. O. and C. O. Oh(2008) Assessing the causal linkages between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 study of Texas Anglers, *The Journal of Tourism Studies* 20(2): 3-23.
 21. Mannell, R. C. and S. E. Iso-Ahola(1987) Psychological nature of leisure and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3): 314-331.
 22. Manning, R. E.(2011)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Search and Research for Satisfaction*(3rd), Corvallis: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23. Manzo, L. C. and D. D. Perkins(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4): 335-350.
 24. McIntyre, N. and J. Pigram(1992) Recreation specialization reexamined: The case of vehicle-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14(1): 3-15.
 25. Mesch, G. S. and O. Manor(1998) Social ties,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local attach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30(4): 504.
 26. Mitchell, M. Y., J. E. Force, M. S. Carroll and W. J. McLaughlin (1993) Forest places of the heart: incorporating special spaces into public management, *Journal of Forestry* 91(4): 32-37.
 27. Moore, R. L. and A. R. Graefe(1994) Attachments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s* 16: 17-31.
 28. Morgan, M. and B. Messenger(2009) Using an activity and place-based typology to explain visitor motivations, *Journal of Forestry* 107(1): 44-49.
 29. Mowen, A. J., A. R. Graefe and R. J. Virden(1997) A typology of place attachment and activity involvement. In *Proceedings of the 1997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Symposium*, pp. 89-92
 30. Needham, M. D., J. J. Vaske, M. P. Donnelly and M. J. Manfredo (2005) Hunter specialization and declining participation in response to chronic wasting disease, Paper presented at the 11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31. Nordenstam, B. J.(1994) *When Communities Say NIMBY to Their LULUS: Factors Influenc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Percep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32. Peterson, G. L., D. L. Stynes, D. H. Rosenthal and J. F. Dwyer(1985) Substitution in recreation choice behavior. In G. H. Stankey and S. F. McCool(Compilers). *Proceedings-Symposium on Recreation Choice Behavior*, pp. 19-30.
 33. Proshansky, H. M., A. K. Fabian and R. Kaminoff(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57-83.
 34. Sampson, K. A. and C. G. Goodrich(2009) Making place: Identity construction and community formation through "sense of place" in Westland, New Zealand,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22(10): 901-915.
 35. Scannell, L. and R. Gifford(2010) The relations between natural and civic place attachment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 289-297.
 36. Shin, H. S. and C. S. Kim(2011) Research articles: The storytelling effectiveness on visitors' place attachment and behavioral intention on local festivals, *Korea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5(5): 277-298.
 37. Stedman, R. C.(200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predicting behavio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 561-581.
 38. Uzzell, D., E. Pol and D. Badenas(2002) Place identification, social cohes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 26-53.
 39. Vaske, J. J. and K. C. Kobrin(2001)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2(4): 16-21.
 40. Vaske, J. J., M. P. Donnelly, T. A. Heberlein and B. Shelby(1982) Differences in reported satisfaction ratings by consumptive and nonconsumptive recreationis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195-206.
 41. Williams, D. R. and J. W. Roggenbuck(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Leisure Research Symposium, Arlington, VA: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42. Williams, D. R., M. E. Patterson, J. W. Roggenbuck and A. E. Watson (1992) Beyond the commodity metaphor: Examining emotional and symbolic attachment to place, *Leisure Sciences* 14(1): 29-46.

Received : 20 March, 2015

Revised : 11 May, 2015 (1st)

24 June, 2015 (2nd)

Accepted : 24 June, 2015

3인익명 심사필